

기술자적 책임 의식과 자부심 가져야

토목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수명은 물론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공사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자적 책임 의식이 바탕이 된 기술자의 눈에는 항상 문제점이 보이게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공사를 수행할 때 기술자의 자부심은 반대로 하늘을 찌를 것이다.

오 늘도 힘찬 안전 구호로 국도 44호선 구성포~두촌 현장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항상 직원들에게 기술자적 책임 의식과 자부심을 강조한다. 이란의 카룬댐 등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의 27년 동안 건설인으로서의 기술자적 책임 의식은 항상 필자의 머리 속 한 자리를 지켜 왔으며, 또한 이러한 모습에 늘 자부심을 가져왔다. 동서간 인적·물적 수송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국도 44호선 화포장 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서는 늘 몸소 느끼고 있는 '내 일이라는 기술자적 책임 의식과 자부심'을 현장 소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 직원이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업무에 임하고 있다.

구성포~두촌 간 현장은 왕복 2차선인 기존 국도 44호선을 4차선으로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개량해 확장하는 공사이다. 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확장 공사는 차량의 소통과 더불어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늘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설계 당시 기존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한 교통 차량 처리가 계획되어 설계에 반영되었지만, 소통 차량에 대해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 설계된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공사 진행과 동시에 실제 현장 여건과의 계속적인 비교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현장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 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성포~두촌 국도 현장의 경우 상당 구간이 산지를 통과하는 절취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2003년과 2004년 여름 계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취약해진 기존 도로 절토 사면이 무너져 기존 도로를 뒤덮은 산사태가 세 차례나 발생하였다. 다행히 산사태가 차량 소통이 적은 새벽에 발생하여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산사태가 발생한 기존 도로가 홍천강과 인접한 사면을 절토하여 형성된 지역적 특성상 주간선 지방 도로가 단



박기홍

구성포~두촌 국도 건설
현장소장(대림산업)

절됨으로 인해 휴가철 많은 차량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의 큰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늘 강조해 오던 기술자적 책임 의식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사고를 접수받은 즉시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물론 홍천국도유지사무소와 홍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급증한 휴가철 차량으로 인한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신속히 차량을 우회 도로로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였으며, 긴급히 장비와 인력을 조달하여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 직원 및

인부들의 철야 작업을 불사한 의지로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복구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산사태는 2003년과 2004년 세 차례나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산사태가 계속된다면 예전처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직접 사면 상부로 올라가 사면 상황을 조사하였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안전을 위해 산사태 구간 기존 도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때마침 산사태가 발생한 기존 도로 구간을 우회하는 신설 구간을 철정터널이 관통함에 따라 긴급히 교통 처리 계획을 마련해 터널로 차량을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었다.

토목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수명은 물론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공사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자적 책임 의식이 바탕이 된 기술자의 눈에는 항상 문제점이 보이게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공사를 수행할 때 기술자의 자부심은 반대로 하늘을 찌를 것이다. 구성포~두촌 국도 현장은 어느 국도 현장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현장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신으로 바라본 이 현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으며, 필자가 겪었던 그 어떤 현장보다 커다란 자부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